

“광주·전남 의제 발굴 ... 지역언론 만형 역할 제대로 해야”

호남 언론 길을 묻다 - 문순태 작가·류한호 교수

대담 = 박성천 기자

지난 세기에 비해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도약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중심에 호남 언론의 중심에 있는 광주일보 또한 새로운 차원의 위상과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창사 61주년을 맞아 언론인 출신 소설가 문순태씨와 언론학자 류한호 광주대 교수를 초청, '호남 언론의 길을 묻다' 주제로 지역신문의 방향을 전망하고 발전전략을 살펴봤다. 대담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본사 14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먼저, 광주일보가 지난 3월에 자매지 '예향'(210호)을 복간했다. 복간호를 본 소감을 듣고 싶다.

▲문순태 소설가(이하 문)=광주의 문화권이 확장됐고 문화 또한 다양해졌다. 종합 월간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 물론 다른 잡지도 있지만 호남의 대표잡지였던 예향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의 예향이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가치와 문화 시대 컨셉에 맞는 내용이 조화롭게 반영돼 있었다.

▲류=복간 결정은 잘 한 일이다. 예향은 광주의 문화적 자산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상이 구축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문화매체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컸었다. 예향이 지역민과 문화, 나아가 수도권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 고리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한다.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은.

▲문=처음에 조성위원이었고 지금도 토론회에 참여한다. 2015년 개관 목표지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담을 채울 콘텐츠가 준비돼 있는지 걱정이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콘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개관하면 문화발전소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교류를 선도해야 한다. 그만큼 광주 문화품격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류=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광주의 문화 지평은 바깥 수백에 불과한 바깥이 아니다. 사실 광주는 문화도시 이면서도 문화인들의 도시처럼 돼 있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문순태

-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백제의 미소'로 등단
- ▲2004년 이상문학상 특별상, 요산문학상 수상
- ▲주요작품 '징소리' '철쭉제' '타오르는 강'(전9권)
- ▲전남일보 편집국장, 광주대 문창과 교수 역임
- ▲담양 생오지문예창작촌장(현)



류한호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현)

는 반증이다. 문화의 격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천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로 들린다.

▲문=광주일보는 6·25직후 공립했던 시절 창간됐다. 당시 남봉 김남중 선생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지역문화 변화를 결단하기 위해 신문사를 설립했다. 당시 제호는 전남일보였다. 지금의 광주일보는 5·18이라는 변혁의 물결 속에서 전남매일과 통합해 탄생했다. 타의에 의한 통합이었기에 시민에 대한 의무감이 있다. 광주일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정신에 대한 천착과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류=만형론을 강조하고 싶다. 만형이라는 자랑스러움이 있을 테지만, 과연 만형노릇 잘하고 있는가 자성도

필요하다. 광주지역 언론이, 특히 신문 쪽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 물론 광주만 어려워진 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 지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눈앞의 문제보다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광주일보가 지역 내 의제를 발굴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지금보다 더 깊고 폭넓게 수행했으면 한다.

—매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문=그렇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월간을 포함한 웹사이트도 수천 개나 된다. 한마디로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거다. 갈수록 젊은이들이 신문을 안 읽는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오래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까. 꼭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가령 소설도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200만권이 팔렸다. 어느 시대든 수준 높은 독자가 있기 마련이다. 신문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급독자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민들은 여전히 신문을 찾는다. 선진국은 엘리

트 페이퍼 시대를 거쳤다. 우리 신문도 빨리 엘리트 페이퍼를 독자층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류=기본 방향은 맞다. 다른 매체와 엄연히 구별되는 신문 독자층이 존재한다. 지금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지불을 원하는 신문 독자가 먼저 떨어져나간다. 무엇보다 인터넷문화는 읽는 문화를 파괴했다.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 사람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종이 신문의 미래는 미디어의 융합, 통섭의 시대에 발맞추어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수준 높은 콘텐츠로 차별화해야 한다. 결국 지식생산자들의 클러스트가 신문의 미래가 될 것이다.

▲문=읽는 기능 약화를 실감한다. 종이책과 사이버출판이 있는데, 사이버출판은 아직 대세가 아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병행해야 한다. 병행을 하되 특색을 지녀야 한다.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정보가 깊고 넓게 갈

려 있으면 승부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1974년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다. "우리 도시에서 살려면 우리 지역 신문을 읽어야 한다" 인구가 5만정도 되는 도시에 신문이 하나 있었다. 당시에 밀러라는 축구선수가 온다고 하니가 1면에 대서특필을 하더라. 마찬가지로 광주에 살려면 광주신문을 읽어야 한다. 담양에도 지역신문이 세 개다. 사소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풀다. 철저하게 지방화, 고급화해 인터넷과 병행하면 미래는 밝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돼간다. 향후 전망을 해보자.

▲류=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민들의 좌절감이 컸다.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 소통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민의 요구 실현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역 이기적, 중심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지역 폭력의 문제 아닌가. 신문이 할 일은 품격 있는 소통구조를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인

의견을 수렴, 적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거다. 지역이기주의로 비추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문=기죽지 말고 당당하자. 우리의 섬은 부끄러운 섬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섬이다. 당당해야 한다. 6·70년대 시절에도 호남푸대접을 강하게 라인과 온라인과 병행해야 한다. 병행을 하되 특색을 지녀야 한다.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정보가 깊고 넓게 갈

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

▲문=감시기능을 살려야 한다. 또 하나는 행복추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여려는 시대가 아닌가. 인권, 폭력 등 사각지대를 살살이 들춰내고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방신문은 큰 이슈보다는 숨겨진 작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류=같은 맥락이다. 뉴스가치 판단이 달라야 한다. 선진사회와 후진사회의 차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의 차이다. 가령 소외된 부분, 어둠에 감춰진 부분은 이야기거리가 무궁무궁하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민정신의 회복도 요구된다. 윤리문제, 사명,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향후 광주일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광주일보가 우리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취재, 편집,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심도 있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의 시대에 맞춰 좀 더 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뒀어야 한다. 광주시민들의 문화품격을 올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그것이 생존 전략이고... 현 시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다. 광주 공연장엔 텅 빈 객석이 많다. 문화 인식의 현주소다. 문화마인드가 있어야 하지 않나. 광주일보가 견인해야 한다. 골목문화부터 큰 극장문화까지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류=광주일보가 지역 언론의 만형 역할을 해야 한다. 문화 중심의 지면 차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을 구현하고, 지방권력 감시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광주사람은 광주일보를 봐야 한다"는 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려올 것이다.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8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 창사 특집 대담에 참석한 문순태(왼쪽) 작가와 류한호 교수가 '호남 언론 길을 묻다'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디어 융합의 시대 발맞춰 끝없는 변신 지방권력 감시역할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지역민 문화품격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사회=요즘을 소통부재시라고 한다. 지역적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문=우리는 닫힌 시대를 살아왔다. 지금은 열린사회다. 목소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목소리를 낼 때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우고 하, 빈부귀천을 떠나 열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즘은 답을 허무는 시대가 아닌가.

▲류=가르쳐야죠.(웃음) 중앙정부 권력도 닫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 중앙과 소통이 안 된다면 내부소통이

라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민 스스로가 미래를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자 시민사회의 허물없는 소통, 아시아 각국과 아픔을 공유하는 소통, 타 문화권과의 격의 없는 소통은 21세기 생존 전략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언론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